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국제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

제시문 (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다. 개인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꼽는다면 ‘개인주의 = 이기주의’라는 등식일 것이다.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이기주의는 ‘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여럿이므로 모든 개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나’라는 자기는 하나뿐이므로,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개인주의에서는 말뜻 그대로 개인이면 누구든 중요시한다. ‘나’라는 개인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그, 그녀 등 모든 개인을 중요시한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 나아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타인의 권리 인정과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는 개인주의의 본질이다. 반면 이기주의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중시하므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즉, ‘나’의 존재는 ‘나’만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 이기주의’와 더불어 성립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집단주의 = 이타주의’ 등식 역시 허상이다. 즉, 이기주의는 이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일 뿐이지 집단주의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 개인주의도 있을 수 있고, 이기적 집단주의도 있을 수 있으며, 이타적 개인주의와 이타적 집단주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타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함께 배려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을 그 자체 목적으로서 취급할 뿐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시문 (나)

It is well-known that individualism promotes selfishness and is a threat to society because it encourages people to believe in their own sense of self-worth, to view themselves as self-sufficient, and to neglect their public duties. Especially, the promotion of individualism can result in self-centered or selfish teenagers who have little regard for the well-being of others. This is not only bad for society; it's bad for them, too. Also, it can be argued that individualism ultimately makes them unhappy.

Researchers studying the effects of altruism* in teenagers have recently made some interesting discoveries. It turns out that having a giving nature actually makes kids healthier; and they end up living a whole lot longer.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a healthy mental state is more closely linked with giving help than with receiving it. Thus, encouraging our teenagers to get more involved with helping others can help them live a more meaningful life.

* altruism: 이타주의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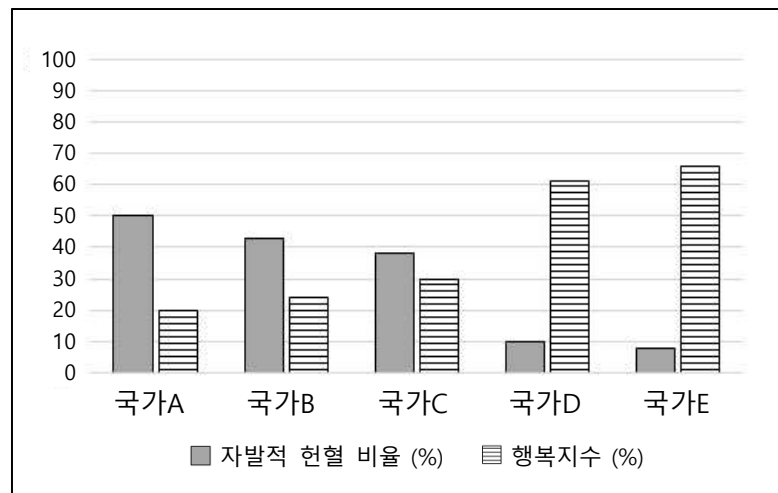
지금까지 인류는 집단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이타주의를 미덕으로 삼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참담하다. 남을 위한 희생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서로를 타인의 희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호의적 공존이나 정의 같은 개념이 흐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기심’이라는 개념의 원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도덕의 목적은 인간에게 적절한 가치와 이익을 정의하는 것이고, 이기심 즉,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도덕적 존재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도덕적 존재가 될 인간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한다. “내 삶에,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에 걸고 서약하노니 나는 결코 타인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며, 타인에게 나를 위해 살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시문 (라)

국가별 10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럽의 한 연구소는 국토 면적, 인구수, 경제 수준 등 모든 지표가 비슷한 다섯 국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개인주의 지수’, 그리고 이타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한 지표인 ‘자발적 헌혈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그들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행복지수’를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임의로 선정된 다섯 국가의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개인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은 선정된 다섯 국가에 속한 10대 청소년들의 연간 ‘자발적 헌혈 비율’과 ‘행복지수’를 보여준다. (이들 조사대상은 소속 국가 전체 청소년의 10%를 무작위로 뽑은 것이며, 평균 연령, 성별,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국가	개인주의 지수 (%)
A	90
B	85
C	70
D	20
E	15

<표 1>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



<그림 1> 국가별 10대 청소년들의 자발적 헌혈 비율과 행복지수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를 기술하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그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하시오. (50점)